

# 사회복지 변화에 대한 홍보는 필수!

비추미여성대상 달리상 수상,  
정부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글 · 사진 박숙미(socialworker@welfare.net)

지난 11월 9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비추미여성대상에서 정부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이 달리상(여성의 문화 언론 및 사회 공익 부문)을 수상하였다. 비추미여성대상은 남녀 또는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여성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2001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달리상을 수상한 정부자 관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발전에 이바지해 온 활동가로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정부자 관장은 1968년 지금의 가톨릭대학교인 성심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양친회(Foster Parents Plan

Inc.) 한국지부에 입사하였으며, 한국사회봉사회 부설 한화아동재단과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재직 시에는 뇌성마비인들의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려 서울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또 1993년에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기술을 발휘하여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맞벌이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동 보호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무의탁 어르신, 장애인, 편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가복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도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에서의 재적응을 돕고



성심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전 양친회  
 전 한국사회봉사회  
 전 한국노성마비복지회  
 전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회장  
 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이사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

안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도의 지원으로 19개 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일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우선 매우 과분한 상이며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쁜 일이다. 큰 상인만큼 책임을 느끼게 된다.

◆ 사회복지현장에 여성사회복지사가 70% 이상이라고 하지만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갈수록 여성사회복지사 기근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여성사회복지사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풍토가 남성이 우선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여성 스스로도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본인은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

또 지위가 올라가면 그에 따른 역할이 커지고 기여도도 높아지게 되는데 동등하게 욕심을 가지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 중도탈락하게 된다.

일정 시점에 이르면 업무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전문성을 요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탈락하게 된다.

◆ 오랜기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많은 후배 사회복지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후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라는 것이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학문인 만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는 물론 내가 왜 사회

건전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 발달장애 영유아를 위한 조기 교육실과 정신지체 장애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특수 교육실을 마련하는 한편 광명시 고등학교 내에 특수 학급을 신설하고 방과 후 직업 훈련과 사회 적응 훈련을 무료로 실시해 장애 청소년들이 졸업 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광명시 소재 8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은빛봉사단을 창단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봉사 활동으로 건전한 여가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여 현재는 일자리사업단을 이끌고 있으며 한 교회 한 경로당 자매 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2000년과 2003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 복지관으로 평가받아 광명시를 경기도 사회복지의 구심점으로 일구어 내기도 했다. 또 1998년부터는 그동



복지를 하는지에 대한 기본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러나 후배 사회복지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준비가 덜 되어 졸업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반면 컴퓨터 능력 등 사무에 관한 기본 능력은 잘 갖춘 것 같다.

▶ **관장님만의 인생철학, 사회복지철학이 있다면 소개부탁드립니다.**

남만큼은 해야 한다. 아니 남보다 잘해야 한다. 1회 입학생으로 선배도 없이 사회에 진출하여 개척자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다.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나의 취미이다. 같은 것을 하더라도 똑같이 하는 것을 싫어한다.

업무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자부심은 모든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청소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기관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계약직일 경우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의 경우 계약직이 없다. 또 이직률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 낮다.

▶ **후배사회복지사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에 처음 나와서 새롭게 배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이론을 다졌다면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사회에 나와서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만나는 기관장과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간관리자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내 경우에는 운 좋게도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지도자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협회 혹은 사회복지계에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에 대해 일반시민 뿐아니라 지식인조차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아직도 사회복지사는 자선으로 여겨지며 사회복지사 역시 따뜻한 마음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사회복지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이 사회복지인지를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협회와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해야 할 몫이다.

최근 협회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활동에 대해 회원조차 알지 못한다. 변화에 대한 홍보는 꼭 필요한 것이다. 액션을 취하고 계속해서 관심 갖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협회가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